

아르헨티나 국별 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의견	9

I. 일반개황

면적	2,737천㎢	GDP (2013년도)	4,896 억 달러
인구 (2013년도)	41.49 백만명	1인당GDP (2013년도)	11,801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 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U\$기준) (2013년도)	5.46

□ 아르헨티나는 총 인구 4천만명 중 약 95%가 유럽계 이민 후손들로 구성된 백인 국가로,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의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 산업이 발달해 있는 농업 강국이며,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 부국임.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11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하여 1983년 민정 이양 이후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여성 대통령이 되었으나, 2013년 총선 패배와 경기침체 지속으로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2005년, 2010년 2차례에 걸친 채무스왑, 2014년 5월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 등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4년 6월 미국법원의 판결로 기술적 디폴트 우려가 대두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제성장률	9.2	8.9	1.9	4.3	0.5
재정수지 / GDP	-1.4	-3.5	-4.0	-3.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9.8	10.0	10.6	N.A.

자료: IMF.

□ 정부투자 감소 및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로 2014년 경제 성장률 0.5%로 둔화 전망

- 2010~11년 세계 경기 회복, 수출품인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 폐소화의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9.2%, 8.9%의 고도성장을 지속함.
- 그러나 2011년 10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이후, 무역·외환거래 규제 강화, 정부의 시장개입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9%로 급감함.
- 2013년에는 대두박 및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 수출 회복 등으로 전년대비 2.4%p 증가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에는 정부투자 감소와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0.5%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 비공식 통계로 30% 이상의 고인플레이션 지속

- 수년간 지속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공식적인 통계로는 10%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비공식 통계로는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필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IMF는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경제 관련 통계 오류 시정을 촉구하며 2013년 2월 '불신임(censure)' 결정을 내린 상태임.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의 압력으로 새로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2014년 5월 13.5%이나, 민간회사(PriceStats)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월 현재 41.2%를 기록함.

□ 수년간 지속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총 조세율이 이미 68.3%(중남미 평균 47.3%, OECD 평균 41.3%)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추가 조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지출 축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 농축업, 석유/천연가스 등 1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변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함.
-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전력, 가스,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 비교적 양호한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해

-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도 풍부함. 최근에는

세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세일오일 매장량 세계 4위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보편적 의무교육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강점임. 인구의 다수가 유럽계 백인으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으며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2.2%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등교육 등록률 90.2%, 고등교육 등록률 74.8%(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 풍부한 부존자원과 양호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이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환 송금 제한 등 시장 개입 강화로 투자환경 악화

-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 레솔(Repsol)의 자회사인 YPF의 국유화 등 반시장적인 정책 시행, 외국기업과의 빈번한 분쟁, 과격한 노조활동 등으로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 상 수 지	1,360	-2,225	22	-4,247	-5,655
경 상 수 지 / G D P	0.4	-0.5	0.0	-0.9	-1.4
상 품 수 지	14,286	12,869	15,334	12,115	10,084
수 출	68,154	83,995	80,890	82,987	77,870
수 입	53,868	71,126	65,556	70,872	67,786
외 환 보 유 액	52,231	46,354	43,246	30,532	26,247
총 외 채 잔 액	156,870	164,841	160,723	154,104	154,079
총 외 채 잔 액 / G D P	42.4	36.8	33.7	31.5	37.8
D S R	25.5	19.6	22.7	24.8	23.0

자료: IMF, EIU, OECD(CRAM).

□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대외 취약성 증가

- 석유, 천연가스 및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및 소득수지 적자로 2013년 GDP 대비 0.9%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6년까지 GDP 대비 0.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확대, FDI 유입액 축소 및 외채상환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10년 522억 달러 → ‘14년 262억 달러 전망)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3년 10월 총선에서 여권 패배로 2015년 대선 정국 가시화 전망

- 집권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이 패배하며 독자적인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짐. 2011년 하원선거에서 여당은 87석을 확보했으나, 2013년 선거에서는 연합 전선과 합쳐 27석을 확보하는데 그침.
- 한편, 총선이 여당 패배로 끝나면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주도권이 위축되고 2015년 대선 정국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고인플레이와 경기 침체로 사회 불안 현상 지속

- 30% 대로 추정되는 고 인플레이와 경기 침체로 사회 불안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13년 말 경찰의 파업과 시위에 이어 2014년 3월 교원 노조 파업, 4월 전국 노조 총파업 등 연이어 파업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국제자본유치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관계 정상화 노력

- 2013년 2월, IMF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통계 조작과 관련하여 '불신임(censure)' 조치를 내렸음. 2014년 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앞 수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통계를 제출하여 IMF 회원국 강제탈퇴 등의 제재(sanction)를 피하게 됨.
- 아르헨티나 정부와 스페인기업 렉솔은 아르헨티나가 2012년 국유화한 YPF(렉솔 지분 51%)건과 관련하여 50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함.

□ 수입규제 심화로 주변국과 갈등 심화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기위해 수입규제정책 등 무역제한 조치를 심화하여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2014년 2월 17일부터 90일 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송금을 전면 중단 한 바 있으며, 3월부터는 수입액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함.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 2014년 7월,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으로 중남미를 방문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디폴트 위기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셰일가스과 4위의 셰일오일 매장량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한편,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2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간 경협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과의 협상 타결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미국법원의 판결로 기술적 디폴트 우려 대두

-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2005년, 2010년 2차례의 채무스왑을 통해 93%의 민간 채권자와 원금 75.6%를 탕감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2014년 5월 파리클럽과도 채무재조정 협상이 타결되는 등으로 외채관련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1월, IMF 채무는 전액 조기상환 완료됨.

- 그러나 채무스왑에 합의하지 않은 민간채권자(62억 달러) 중 Elliot 등 미국계 헤지펀드의 소송제기 및 2014년 6월 미국 대법원의 아르헨티나의 원리금 전액 상환 판결로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가능성이 대두됨.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 아르헨티나는 국제 준거법인 미국법에 따라 뉴욕 멜론(Mellon) 은행을 통해 탕감된 채무를 상환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은행 예치금이 압류되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함.

2. 국제시장평가

□ 기술적 디폴트 우려 증대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및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 증대 등을 이유로 S&P는 2013년 9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CCC-로, 2014년 3월 Moody's는 Caa1으로 하향조정함.
- OECD는 2013년 10월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경제상황 악화와 기술적 디폴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평가함.(2002년 이후 7등급 유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2년 이후 다시 교역량 증가추세로 2013년 교역량 23억 달러 기록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물성 물질(대두, 사료), 동광 등임.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교역량은 2001년 디폴트 이후 급감하였다가 이후 매년 10~20%씩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출이 전년대비 84%, 수입이 18.3%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2011년에는 21억 달러(수출 10.8억 달러, 수입 10.5억 달러)의 교역량이 2012년 수입 급증으로 24억 달러(수출 9.7억 달러, 수입 14.3억 달러)를 기록함. 2013년에는 수출 10.7억 달러, 수입 12억 달러로 교역량이 2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아르헨티나는 과거 중남미 지역의 주요 직접투자 대상국이었으나,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직접투자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음. 2014년 3월말 기준 신규 법인 투자 60건, 총 1억 8,538만 달러로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39.9%), 도매 및 소매업(34.1%), 농림수산업(15.9%)임.

<표 3>

한·아르헨티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081	973	1,075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1,048	1,428	1,195	식물성 물질, 동광
합 계	2,129	2,401	2,270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아르헨티나는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시기인 2010~11년에는 각각 9.2%,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 비시장적·보호무역주의 부작용 등으로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9%로 급감함. 2013년에는 성장률이 4.3%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나 성장률이 매년 급격히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년간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30%대의 물가상승률(비공식 통계)을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 채무재조정 채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및 국제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조사역 허성희 (☎02-6552-5712)
E-mail: seonghee@koreaexim.go.kr